

# 濟州道 無文土器 文化研究

## 文 基 善

### 目 次

- I 序
- II 自然環境 및 文化流入
- III 遺物 現況
- IV 出土 遺物
  - 1) 土 器
  - 2) 石 器 類
- V 結

### I 序

濟州道 原始社會를 背景으로 한 造形文化를 考察하여 本道 特有的 傳統文化의 起源을 把握하고 그 骨格만이라도 一次 體系를 새우며 先史時代의 遺物을 收合 整理하고 學的인 基礎를 마련하는데 뜻을 두고 있다.

이러한 考古美術의 研究는 有史以前 先史時代의 美術作品이나 造形活動을 歷史的으로 考證하고 製作意思와 그 樣式을 밝혀 當時의 社會相과 文化를 客觀的으로 규명하려는 學問적으로 考古美術品의 資料는 學術上의 價値는 勿論 古文化의 遺産物에 끝이는 것이 아니라 濟州地方의 先史文化樣相을 밝히는데 없어서는 안될 重要한 文化財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濟州道 考古美術에 關한 研究는 于今 이 分野에는 記錄된 文獻이 作成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參考書籍이 零星하여 考古學的 方法에 依存하여야 함에도 資料上 너무나도 不足한 點이 많고 이의 文化樣相을 充分히 描寫하기란 前途遼遠한 問題點이 많다고 보아진다.

近者에 와서 이고장 濟州에는 支石墓群, 立石 그리고 打製石器, 磨製石器, 사슴化石, 炭화된 황곰배 패총 및 先史以前 社會의 住居址로 보이는 遺蹟들이 島內 各處에서 貴重한 先史時代의 古美術資料가 續出되어 이 方面에 뜻을 두고 있는 學者間에 至大한 關心事가 되고 있다.

本道 先住民의 文化發祥을 農耕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衣食住를 解結하기 爲한 根本的인 手段에서 狩獵 또는 漁獲과 農耕에서 養畜 段階로 飛躍 發展한 石器時代를 거쳐 金石併用期의 農耕道具의 索出과 遺物發掘 動物 또는 植物의 遺體나 化石 그리고 壓痕等의 廣範圍한 遺蹟發掘調査에서 그 形態가 次次 漸移的으로 糾明되어 질 것으로 본다.

## Ⅱ 自然環境 및 文化流入

濟州道는 漢拏山을 中心으로 하여 東西가 약 80km 南北이 약 40km이고 周圍가 약 254km인 橢圓形인 섬으로 되고 있으며 面積은 약 1,819km<sup>2</sup>이다.

位置上으로는 東經 126度 10分에서 126度 58分이고 北緯 33度 12分에서 33度 34分인 經緯度上 韓半島의 最南端에 자리하고 있는 大島로서 隣接地와의 交通거리는 木浦間 88海哩이고 釜山 및 이웃 日本 對馬島間的 거리가 170海哩上에 位置하여 濟州道는 일찍부터 中國本土에서 일어난 文化의 傳播路 (東北으로는 몽골路, 東으로 揚子路, 西로는 티베트路, 페르시아路) 와 시베리아 文化 傳播路를 타서 韓半島로 들어온 滿蒙 南行文과 시베리아 文化 傳播上의 東南行文가<sup>1)</sup> 混合 土着化한 韓半島의 文化가 本道로 流入된 先史文化는 上述한 바와 같은 北方的 要素와 大海를 거쳐 本道로 上陸한 海洋의 性格을 띤 南方的 文化가 混在해 있을 可能性은 地理的 條件에 依한 外來文化가 流入 融合되면서 漢拏山을 中心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本道特有한 文化圈을 形成했다 해도 지나친 推測은 아닐 것이다.

이렇듯 濟州道 古美術의 文化的 性格은 北方系列의 大陸的 要素와 南方系列의 海洋 島嶼的 要素가 서로 融合되면서 本道 原始文化이 主軸을 形成한 것이라고 짐작이 가는 터이다.

특히 日本 九州地方의 遺蹟과 金海期 陪葬으로서 釜山 東三洞 陪葬에서 出土된 土器는 粒子가 若干 굵은 胎土를 使用하여 만들어졌으나 石粒이 加入은 顯著하지 않고 器形으로는 半卵形 圓底土器이고 口緣部에 押捺 斜交線文을 돌려 만들어져서 櫛文土器와의 接觸을 聯想시키는 것도 있고 花盆形의 平底部에 中間 腹部에는 外灣한 鉢形土器片은 日本 中期 繩文土器의 器形과 一脈相通하다는 點과 釜山 아치섬 陪葬 發掘 作業報告書에서와 같이 日本 北九州地方 彌生文化 BC 2~3世紀의 土器와 너무나도 類似하다는<sup>2)</sup> 立證은 韓半島의 南端 洛東江 河口地方과 日本 北九州 그리고 濟州道 海岸 住居地 및 其他 遺蹟址에서 發掘되는 遺蹟과도 聯關性이 있음직한 點은 우연만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三國志의 韓傳과 後漢書의 東夷傳等에 依하면 「又有州胡 在馬韓之西海中大島 其人差短小 言語不與韓同 皆髡頭如鮮卑 但衣韋好養牛猪 其衣上有無下 略如裸勢 乘船往來 市買中韓 (後韓書에는 貨市韓中)의 中國古典에 州胡人에 對한 記錄이 있고 이를 뒷받침 해주는 山地築港工事 (1928年 8月 末頃)當時 採石場의 石山속에서 熔岩으로 密閉된 洞窟이 있고 그 속에서 前漢代 五銖錢과 古鏡 그리고 王莽時代 처음으로 鑄造한 銅製貨幣인 貨布와 貨泉, 石簇과 土鞵들도 나왔다는<sup>3)</sup> 點은 王莽時代의 海外貿易 장려책과 樂浪郡등의 漢商들이 濟州에 進出하여 왔

1) 中尾佐助 「地中耕文化 傳播 ると」 1970.

2) 韓炳三 「博物新聞」 釜山 아치섬 貝塚發掘 1973.

3) 1928年 山地浦口 築港工事 現場 關與人 金範堉氏의 論証과 朝鮮資料

거나 或은 濟州 先民들의 交易에 依하여 獲得 所持하고 있다가 當時 이들의 住居地인 洞窟을 다시 火山 爆發熔岩으로 뒤덮여 密閉되어버린 當時 先民의 慘禍地로 보아 于先 州胡人을 耽羅의 元民으로 假定해 두고 州胡人의 特徵을 살펴 보면 體軀가 短小하고 下衣를 입지 않은 習俗이나 머리를 짧게 한 점은 海洋을 相對로 生業活動에 便하게 한 漁採人의 慣習인 듯 하고 이러한 觀點으로 考察할 때 島嶼族 系統으로 體軀가 短小한 日本 九州地方에 살고 있는 小人「고루보구」族과 類似하여 東南亞 原始 種族이 北上한 島嶼人이 아닌가 한다.<sup>4)</sup>

1892年 日本人學者 松尾之長著「아이누 風俗略誌」에 依하면 아이누 以前에 北海道에 居住했던 小人 高루보구人은 石器와 土器를 만들어 使用하였고 堅穴에 살았다고 하였으며 北海道 各地에서 出土되는 石器와 土器들은 奧羽地方에서 九州地方에 이르기까지 日本 全國 各處에서 發掘되었던 것은 이 人種이 오랜 옛적에 全國內에 跋扈했던 것으로 推知되며 體軀가 短小한 高루보구 人造物과 濟州道 各處에서 出土되는 先史時代 遺物等은 耽羅元民의 所屬種族을 밝혀 내는데 좋은 參考資料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터이고, 이 州胡人의 社會가 火山 爆發로 滅亡된 後에 三姓氏族 人物이 이 섬을 主管하여 繁榮과 發展의 土臺를 마련하였을 것으로 보아진다.

여기 耽羅志에 紹介된 本道 開闢神話를 引用하여 보면

『瀛洲太初無人物也 忽有三神人從地湧出鎮山北麓 有穴曰毛興 長曰高乙那 次曰良乙那 三日夫乙那 狀貌甚偉 器度寬豁 絕無人世之態也 皮衣肉食 常以遊獵爲事 不成家業矣 一日登漢孛山 望見紫泥封木函 自東海中浮來 欲留而不去 三人降臨就開則 內有玉函 形如鳥卵 有一冠帶紫衣使者隨來 開函有青衣處女三人 皆年十五六 容姿脫俗 氣韻窈窕 各修飾共座 且特駒犢 五穀之種出置 金塘之岸三神入自賀曰 是天必授我三人也 使者再拜 稽首曰 我東海碧浪國使者也 吾王生此三女 年皆壯盛而求不得所耦 常以遺嘆者歲餘頃者 吾王登紫霄閣 望氣 連空瑞色蔥蔥 中有絕岳降神子三人 將欲 開國而 無配匹 於是命臣侍三女 以來 宜用伉儷之禮 以成大業 使者忽乘雲而去 莫知所之 三神人郎以潔牲告天 以年次分娶 就泉甘土肥處 射矢卜地 高乙那居 曰 第一都 良乙那所居 第二都 夫乙那所居 第三都 自此以後始成產業植播五穀 且牧駒犢 日就富庶遂成人界矣 厥後九百年之後 人心咸歸于高氏以高爲君 國號屯羅 至十五世孫厚清季三昆季造船渡海 朝于新羅 泊于耽津 新羅盛時也 于時客星見于南方 太史奏曰 異國人來朝之象也 己而耽羅王來朝新羅 王喜曰 豫以不德遽得貴客 不亦悅乎 以厚爲星主 以清令出袴下 愛如己子 各曰王子東宮季爲徒內 改耽羅爲南化國 各賜衣冠寶 蓋親送 南道車騎輻重大屬百里 自是之後 敬事新羅 世受其職 以修藩臣之禮 至厚 十二世孫聘服事百濟 聘卒後曠世不朝 百濟東城王庚申以耽羅不修朝貢 發怒興師率四千騎 親征南塞至武珍州 耽羅王 昭聞之遣使乞罪乃止其兵 高麗太祖二十一年 戊戌 耽羅國主高自堅 遣太子末老來朝 仍賜星主王子爵 自後世一朝見未有 筮仕

4) 金榮德「濟州島略史」濟州年鑑1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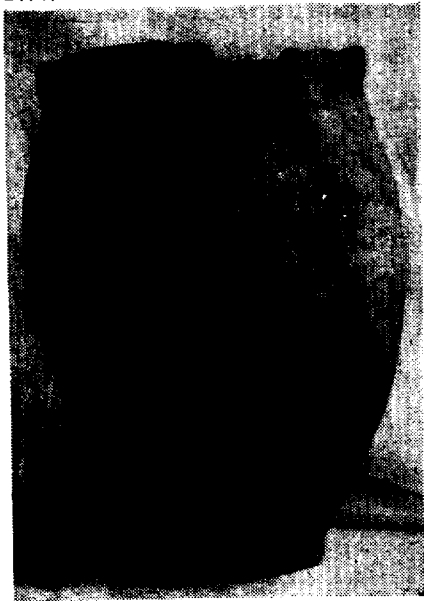
王國者至維始仕焉』<sup>5)</sup>

이 原文 核心을 簡單히 要約하면

太初에는 人物이 없었고 漢孛山北麓地 毛興穴 (現三姓穴) 에서 三神人이 湧出하니 長은 高乙那요 次는 良乙那이고 세째는 夫乙那이다. 이들은 皮衣肉食하며 狩獵生活을 하다가 하루는 東海에서 떠오르는 紫泥로 封한 木函을 發見하고 十五六歲의 青衣를 입은 三處女를 맞아드리고 諸駒犢 및 五穀種子를 얻고 一都 二都 三都의 肥沃한 土地를 選定하여 五穀을 播種하고 駒犢을 養畜하는 濟州道 三姓先民社會의 農耕文化를 그대로 描寫한 最古의 貴重한 文獻이라 할 것이다.

## Ⅱ 遺物 現況

濟州市 漢川 東邊, 現濟州道廳 앞 東西國道 北邊을 끼어 俗稱 한내 (漢川) 동가름 (東洞) 평탄한 터전에 先住民의 遺蹟址로 發見된 것은 現地에서 果樹園을 經營하는 유 봉익氏가 道路美化作業中 거의 온전품에 가까운 (圖1) 無文厚肉土器를 發見하고 濟州大學博物館에 寄贈하며 採



(圖 1)

取한 緣由를 밝힌데서 그 遺蹟址임을 알게 되었고 濟州市 吾羅一洞 A地區 第十二號 支石墓<sup>6)</sup> 漢川群 巨石文化人들의 生活 根據址였음을 一見하여 짐작이 가게 하고 이 部近에서 無數한 厚肉土器의 破片은 主로 耕作地의 境界線 (俗稱 갯벽) 幅이 2m 乃至 3m에 가까운 積石層 (先住民의 住居址를 後世에 와서 耕作地로 化하면서 耕作에 不必要한 石物 및 土器 其他 遺物까지도 모여둔 곳) 에서 出土되고 있고 隨伴하여 石器類의 還石, 石斧 그리고 大形土器의 平底部 厚肉土器片 (圖2) 은 特記할 만한 遺物이다.

1963年 龍潭 二洞 七五--番地의 耕作地上에 直經 300cm가 넘는 蓋石에 길이는 一定치 않지만 6個의 支石은 大략 60cm 높이의 支石墓를 發見하고 그 周

邊에서 出土되는 無文厚肉土器片을 發屈하면서부터 이고장 考古美術 分野에 着眼하기 始作하

5) 李元鎮 「耽羅誌」 1653.

6) 宋 錫範 「考古資料」 濟州道文化財 및 遺蹟綜合調查報告書 1973.



(圖 2)

였음을 밝혀 두고 싶다.

이러한 漢川邊 巨石文化期の 遺物과 郭支貝塚에서 얻어지는 多様な 遺蹟 그리고 北村海邊에서 약 1km 南쪽 俗稱 고두기 언덕 堅穴 住居址에서 出土되는 繩文土器片 그리고 厚肉土器片 其外 여러가지 石器類와 骨器, 貝類等이 出土되고 意外의 市內 中心街 一徒一洞 一三四九番地上 宅地에서는 無文厚肉土器片이 出土되고 있어 本道 先史時代의 文化尺度를 짐작하게 하는 唯一한 文化財라 할 것이다.

#### IV 出土遺物

新石器時代는 年代上으로 언제부터 始作이 되었는지는 正確히는 알 수 없으나 이 점에 대해서는 放射性炭素測定法으로 차차 밝혀질 것으로 보며 대략해서 時代區分을 隣近地인 中國에서는 新石器 前期인 馬家期가 西紀前 2200年으로 보고 後期인 齊家期라 西紀前 1740年으로 推定하고 있고 華北에서는 新石器時代 始作이 西紀前 2000年代 頃으로 推測하고 있고 日本의 新石器時代에 해당하는 繩文土器와 그 앞서 無文土器文化時代가 問題點으로 남아 있다.

한편 無文土器文化의 年代는 西紀前 4000年 前後로 推定하고 繩文土器의 始作은 대략 西紀前 3000年代로 밝혀져<sup>7)</sup> 本道의 新石器文化는 대체로 西紀前 2~3000年代라고 心證이 가며 濟州道의 新石器文化는 隣接地方과 密接한 交涉을 지니고 있음을 考慮할 때 우리 고장의 新石器文化

7) 金 元龍「韓國考古學概說」1973.

만이 唯獨 그年代가 더 오를 수도 없고 또한 너무 뒤떨어져 늦을 수도 없는 터이다.

## 1. 土 器

吾羅洞 出土土器(圖1)는 口緣部에 施文具로 아주 드문드문 押捺斜線文帶를 둘러 文樣을 裝飾한 程度여서 無文厚肉土器와 柳文土器文化期の 中間의 過渡期の 土器가 아닌가 보아지며 胎土에는 粟粒程度의 石粒을 加入시켜 原始의 方法의 露天窯에서 比較的 단단하게 燒成된 土器라고 할 수 있다.

土器의 成形된 狀態로 보아서는 壺壁이 두께가 一定치 않은 點은 粘土를 가져 土器 周圍를 돌면서 積輪法으로 環狀構築成形하고 打具로 土器 內外面에 打痕을 加하여 단단하게 成形하고 乾燥시킨 後에 地上에 可煙物質(벼짚)등을 두둑히 깔고 그 위에 燒成하려는 土器를 適當히 配列하고 다시 질과 같은 可煙性物質을 덮어 錫워 四方으로 引火하여 燒成<sup>8)</sup>된 土器로는 거의 온전하게 出土된 土器이다.

이 土器는 高가 29cm 最大腹徑이 21.5cm이고 底徑이 10cm이며, 口徑이 18.7cm로 口緣部 두께가 0.8cm, 胴體 두께가 0.8~1.5cm, 底部 두께는 1.8cm로 口緣部에서 漸次 平底部로 내려오면서 두께가 두껍게 安定된 土器이며 器形은 底部 高臺에서 器高 中間以前에 最大腹徑을 이루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졌고 頸部에 가서 다시 밖으로 벌어진 口緣의 壺型을 意圖의으로 造成하였다고 본다.

土器로서는 全体 安定된 平底에 比較的 均整된 土器이며 色調는 茶褐色으로 精選된 胎土에 石粒을 加入하여 만든 貴重한 土器라 믿어진다. (現品은 濟州大學 博物館에 珍藏되어 있다)

吾羅里 出土 無文厚肉土器片(圖~2左)은 平底面부가 三分之一 程度가 남아 있는 厚肉土器片의 造形輪廓線으로 보아 大形土器였든 것으로 推測한다.

高臺底面 外徑이 19cm이고 內徑은 一定치 않으나 대략 15cm程度이며 平底最高厚質部分의 두께는 무려 3cm나 되며 高臺에서 腹部 胴體를 이루는 傾斜度는 약 25°의 角을 유지하며 완만한 외만 곡선으로 形成되어 흡사 缸型과 같은 大形土器였음을 聯想케 한다.

頸部土器片(圖-2右)의 크기는 약 15cm×13cm. 두께는 2cm 程度이고 口緣部 마침部分은 떨어져나가 없어졌으나 이 頸部土器片은 腹部와 底部를 連結시키는 造形上의 推定輪廓線을 짐작하게 하는 土器片으로 본시 이 無文厚肉土器의 크기는 대략 60~80cm에 가까운 大形土器(缸)가 아니었던가 한다.

이 土器片 二點은 造成上 胎土에는 米粒切半 程度의 石粒을 加入시켜 粘土環 積輪法으로 造成하고 器壁은 內外部로 打具를 使用한 打痕이 뚜렷한 點이 많고 色調는 茶褐色을 띠고 있다.

8) 中里太郎右衛門(十三代)에 依하면 只今現在도 新加坡에서는 原始의 方法으로 土器를 造成한다 함



(圖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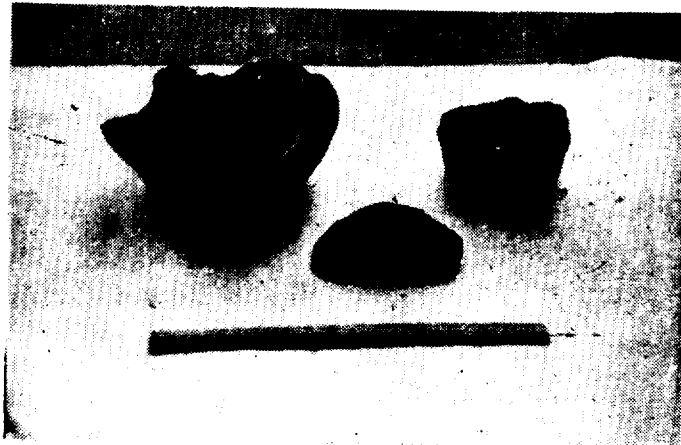
吾羅里出土 角盃形土器 (圖一3) 은 底面經이 4cm 이고 굽 높이가 3.5cm 厚肉斷面部分은 1cm 程度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器壁은 얇어지고 高가 9cm 程度가 남아 있어서 土器全體의 形態는 어떠한 形인지는 明確히 알 도리가 없으나 매우 재미스러운 尖底形角盃가 아니었던가 한다.

이 土器도 亦是 粟粒程度의 石粒을 加入시켜 만든 角盃形土器로서 굽은 尖端을 이루웠으나 使用하면서 磨滅된 痕跡이 뚜렷하여 地面같은 데에 꽂아 두는 土器가 아니었던가 하며 色調로는 灰褐色에 가깝고 土器內面은 粗野한 反面에 外部器面은 매끄럽게 잘 磨研해서 만들어진 土器이다.

#### 郭支出土土器

平底部土器片 二點 (圖一4上) 도 無文厚肉土器로서 其一은 平底面 直經이 13cm이고 高臺 없이 약 40°의 角度로 中間腹部를 이룬 卵型 輪廓線에 底部 두께는 3.5cm이며 茶褐色調를 띤 厚肉土器片이고 其二는 亦是 같은 平底部 土器片으로서 底面經이 11.5cm이고 高臺를 이루며 위로 오른 線은 해버러지지 않은 듯하며 破器斷面의 두께는 2.5cm 程度이고 其一 土器片과 같이 茶褐色을 띠고 있다.

寫眞圖一4下의 蓋器도 厚肉土器이며 中央에 突起된 손잡이를 中心하여 周邊은 거의 破壞되어 없어졌고 現在 남아있는 크기의 最長은 12cm이고 蓋層이 약 2.5cm 손잡이가 약 2.5cm이고 蓋



(圖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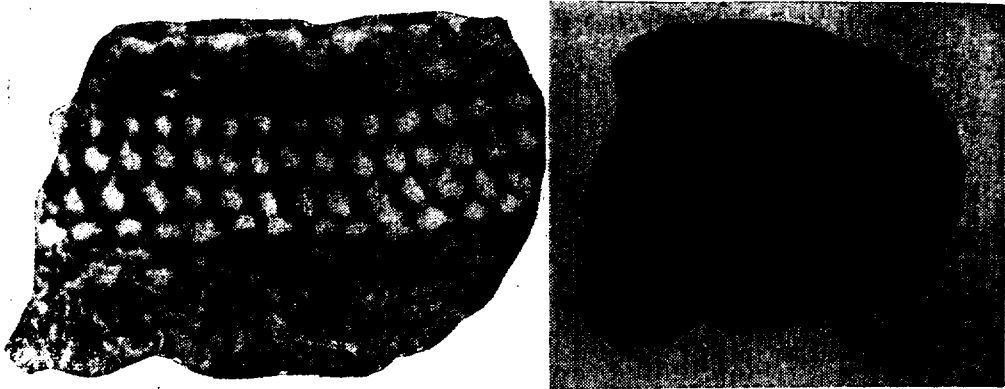
器의 周圍造形狀態를 把握하는에는 周邊端形이 없어 全体的인 造形狀況은 석연치 않지만 成形工程은 胎土에 粟粒程度의 石粒은 加入시켰고 蓋器의 平面土層은 평평한 면에 胎土를 놓고 打具로 때려지면서 넓혀나간 것 같고 中心部에는 隆起된 釘型 손잡이를 만들었고 蓋器의 色調는 茶褐色을 띠고 있다.

### 北村 出土 土器

北村 海邊에서 약 1km 南쪽에 位置한 俗稱 고두기언덕 堅穴遺居址에서는 無文厚肉土器片과 더불어 精巧한 櫛文土器片이 多樣하게 發掘되었고 動物遺體(骨)의 出現에서는 漁撈爲主에서 陸産物에 더 重點을 둔 새로운 轉換點과 原住民이 交替가 되었던 點을 暗示해 주는 遺蹟地가 아닌가 하며 이는 濟州道에 들어온 櫛文土器人들의 背景을 그대로 밝혀 주는 貴重한 新石器文化人들이 남겨 놓은 考古美術 資料라 할 것이다.

現在 櫛文土器文化의 遺蹟은 地域의으로 鴨綠江, 大同江, 漢江, 洛東江, 豆滿江 그리고 西南島嶼 6郡으로 나눌 수 있고<sup>9)</sup> 제주도도 西南島嶼郡에 屬하는 櫛文土器人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點孔文土器片(圖~5)는 比較的 粘性이 높은 精選된 胎土를 使用하여 頸下部에 四列並行點線을 施文具로 깊게 壓印橫走하여 點列裝飾을 加하여 簡古한 美를 돋보이게 하였고 口緣部나 腹部를 이루는 器體의 두께도 거의 一定한 0.4~0.5cm의 薄肉으로 되어 있어 熟鍊된 솜씨임을 한 눈에 읽을 수 있다. 土器는 黑灰色調를 띠고 있으며 이 點孔文土器 外部에는 磨研을 加하여



(圖 5)

9) 李 春寧 「韓國農耕 起源에 關한 小考」 民族文化研究 第7號 1973.



때끄러운 表面的 裝飾을 하였고 土器內面은 로구로上에서 橫走된 走行痕이 그대로 남아 있다.

平行斜交文土器片(圖~6)은 褐色胎土를 使用하여 로구로上에서 두께가 거의 一定하게 成形되었든 土器片으로 土器外面에는 平行斜交文 施文具로 亂押하게 加해졌고 同時에 土器壁內外를 輕打하여야 됴므로 土器內面에 加해지는 施文은 水平並行線列이 길게 橫으로 外部 보다는 아주 엉기게 壓印된 點으로 보아 器口가 넓은 土器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色調는 灰褐色)



(圖 6)

櫛文土器人들은 西海岸 또는 東海岸으로부터 살기 좋은 住居地를 찾아 大舉 洛東江 下口地域으로 移居되어 온 것 같으며 또한 이 櫛文土器人들은 南進하면서 海峽을 건너 九州 佐賀縣 唐津市 西唐津 海邊에 이르렀고 이들은 다시 九州地方에서 海峽을 건너 琉球方面에까지 먼 거리를 간 것 같고 變形 櫛文土器를 造形한 第二櫛文土器期의 發生과 開始는 中國 東北地方으로부터 住民이 移住됨으로서 새로운 文化가 傳來되었음과 關係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即 古시베리아系 櫛文土器住民이 살았던 韓半島에 새로 中國 東北地方으로부터 中國系 新石器 文化人의 影響을 받은 龍그스系 住民이 移住되면서 새 文化의 潮流를 타서 變形櫛文土器가 形成되었다.<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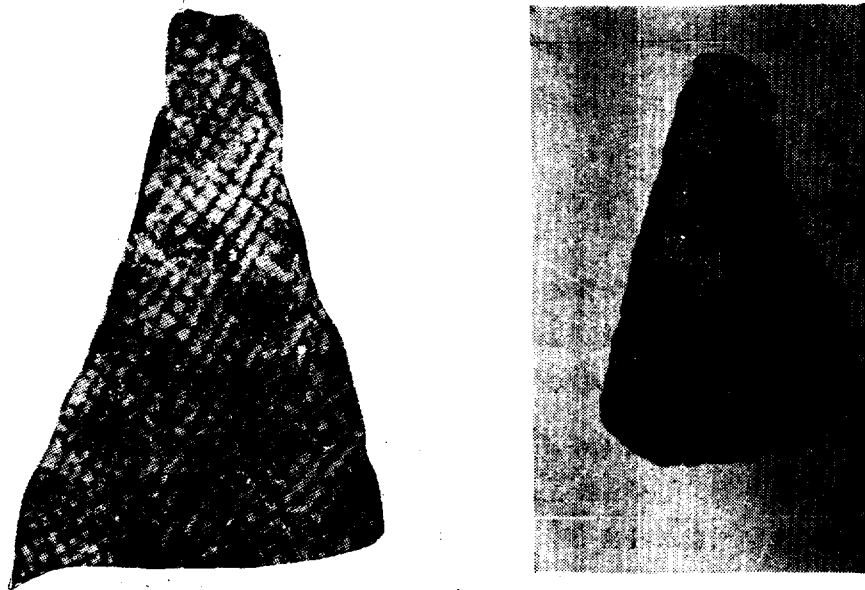
花盆型으로 된 二重口緣土器(圖~7)은 底平角木 같은 施文具로 上端에서부터 1~2mm 程度의 간격으로 押印을 加하며 밑으로 二重口緣部까지 裝飾文樣을 시도하여 마치 電光文 또는 重疊된 山形 施文으로 되어있고 土器 胴體는 反對로 無文으로 造形하여 二重口緣部를 더욱 視覺적으로 浮刻되게 하였고 土器內面은 엉긴 水平櫛文을 길게 橫走하여 裝飾文樣의 對照度를 充分히 考慮하였으며 色調로는 赤褐色을 띤 胎土를 使用하여 두께는 약 0.8cm로 精巧하게 造成된 土器였을 것으로 보아진다.

10) 圖分直一「日本民族文化의 研究」1970.



(圖 7)

密集交叉線文(圖~8)로 亦是 明褐色土器片으로 두께가 0.7~8m/m 風納里出土 金海式土器<sup>11)</sup> 와 너무도 類似한 點이 많고 造形上으로는 土器에 文樣을 抑捺한 施文具에 간격을 一定하게 짚게 並行溝線을 刻하고 다시 菱形이 되도록 交叉하여 並行溝線을 刻한 施文具로 器形 全面 또는 一部에 壓印 裝飾한 土器가 아닌가 한다.



(圖 8)

肩部橫走線文土器(圖~9)는 肩部以上 頸部 및 口緣部位의 造形을 읽을 수 있어 그 特色을 살펴보면 土器肩部에 로구로가 回轉하는 速度에 따른 橫走線이 均一하지 않게 強弱을 살리고 並行을

11) 金 元龍「原三國文化」韓民考古學概說 1973.



(圖 9)

避하며 橫走線裝飾을 넣어 口緣部, 頸部, 肩部 및 全体에 調和를 期圖해서 統一感을 주었고 이 橫走線 밑으로는 주걱과 같은 施具로 土器面 腹部 上下를 길게 긁어 내린 點은 意識的으로 橫走線 裝飾文樣을 더욱 浮刻되게 한 新石器社會 原始人들의 現代의 感覺에 再三 驚嘆하여진다.

(이 土器의 色調亦是 赤褐色이다)

## 2. 石 器 類

### 石 皿

(圖-10) 의 右側은 實物크기의 길이가 25cm이고 最大幅이 14cm, 두께가 7cm인 이 石器는 石皿이었던 것이 長久한 歲月동안 파괴되고 磨滅되면서 現寫眞과 같이 石皿 一部 破石에 不過



(圖 10)

하다. 이 石皿 上面에는 磨痕이 뚜렷하고 石皿 中心部가 아니면 石棒과 磨擦運動 頻도가 많았던 面으로 推測하고 器型은 外部로 완곡되었던 皿型으로 되었던 自然石(本道 多孔質 玄武岩)을 板石으로 固定 利用하고 그 위에 磨擦運動石 石棒과 한쌍을 이루워서 小粒 穀實을 脫殼하거나 粉碎하는 原始農耕具의 一種이다.

여기서 이 磨碎石은 漸次發展하여 變貌한 過程을 容易하게 考察하여진다.

石皿이 進展하여 臼(절구)化하고 石棒이 더 나아가 절구공이 一組가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 절구와 절구공이가 더 發展하여 지레의 原理를 利用한 디딜방아가 되었고 더 나아가 水力을 利用하는 水車(물레방아)로 發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磨碎石이 다르게 發展한 過程은 石皿이 돌확(움푹파인 石器)이 되고 石棒은 돌확에서 脫殼 또는 粉碎하는 石器가 되던것이 漸次 碾磑(연애) 맷돌化 하였고 이것이 더 發展하여 畜力을 活用하는 연자매로 發展하였던 모습은 石物器가 많은 우리 고장에서는 쉽게 追跡할 수가 있다.

## 石 棒

磨碎石인 石棒이 原形은 石皿 크기의 用途에 맞는 길이를 要했던 것이었으나 切斷되고 磨滅되면서 現在와 같은 작은 石片만이 남아있다. 現 石棒의 斷面은 半月形이고 마치 半月形으로 된 柱狀이다. 이도 本是는 圓柱였든 것이 使用되면서 半月柱狀이 된 것이 아닌가 한다. 圖 ~10 左側 石棒은 길이가 11cm이고 幅 8cm, 두께가 4.5cm이며 또 하나는 길이가 10cm, 幅 10cm 두께가 4.5cm이다. 두 점이 石棒도 다같이 짧아진 原因은 使用時나 또는 그 後에 어떠한 條件으로 斷切되었든 것으로 보고 石質은 石皿과 같은 濟州道 多孔質 玄武岩으로 磨研하여 만든 最古 農耕道具의 一種이라 할 수 있다.

## 石 斧

器身の 크기는 길이가 19cm, 最大幅이 7cm 두께가 2.5cm 그리고 蛤形 날의 길이가 6cm이고 細白線으로 雲文이 若干 박혀져 있는 灰青色 珪岩片石으로 만들어졌다.

石斧는 上記한 바와 같은 크기의 比較的 整形된 自然石을 採石하고 磨研을 加하여 蛤形으로 날을 예리하게 달았고 石斧의 斷面은 길쭉한 橢圓形이고 側面은 外灣하였으나 거의 平直하여 木柄等에 着裝하기에 便하게 되어있다.

道內에서 發見되는 이와같은 石斧는 대개 珪岩質 石製로 만들어진 것이 드문드문 나타나고 있는 點으로 보아서 濟州道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石英質과 珪岩質 鑛石이고 보면 必境은 이 珪岩質 母石이 있는 곳에서 石斧를 製作 利用하다가 本道로 移居하면서 携帶하고 들어왔든 先史文化人으로 일단은 看做하여야 할 것이다.

## 叩 石

圖~11 叩石은 차돌類의 緻密한 天然川石으로 採石한 環石을 兩面 中心部에 打孔을 加하여 環石化로 하여 圓周가 擦過傷으로 많이 달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 크기가 直徑 9cm이고 두께가 5cm이며 손잡기에 알맞은 크기의 叩石(環石)이 아닌가 한다.



(圖 11)

이러한 環石에는 齊月里出土와 같은 環石, 周緣에 날이 갈리는 環狀石斧, 多頭石斧, 塊狀形石斧의 四種으로 分類할 수 있고 多頭石斧에도 날이 툽니바퀴 모양으로 생긴 것, 그리고 별 모양으로 생긴 것, 자루(柄)가 押入되는 孔이 있는 것등 여러 가지로 細分하며 濟州道를 除外한 全國 57個區 各地의 報告<sup>12)</sup>에 새로운 資料를 追加하게 할 貴重한 無柄環狀石斧가 아닌가 하며 이 石器는 狩獵과 農耕에 어떻게 관련지어지며 그 時代性과 環狀 叩石의 機能등 多樣하게 研究해야 할 課題가 많은 石器라고 보아진다.

## V 結

濟州道の 考古美術上 造形 形式을 一管見 披瀝하고 이 方面에 우선 不足한 資料를 收拾整理하고 學的인 基礎作業을 試圖하려 하였다.

近者에 와서 文化的 關心度가 高潮되어 가고 道內 各地에서 새로운 古美術資料들이 續續 出土되고 있음은 매우 즐거운 일이나 考古美術에 對한 留意不足으로 發掘 處理不實로 말미암아

12) 崔夢龍「潭陽齊月里的 石器文化」湖南文化研究 第5輯 1973.

貴重한 文化財가 파괴되고 痕跡마저 없어진 例도 허다한 事例다.

지금까지 吾羅里 住居址 出土 無文厚肉土器 環石 其他遺物, 郭支貝塚 出土 石皿과 石棒 그리고 無文厚肉土器片 및 其他 遺物. 다시 北村 俗稱 고두기언덕 堅穴 住居址 出土 槲文土器의 多様な 破片等 石器 遺物을 簡單히 紹介하면서 斷片的으로나마 濟州道 考古美術學의 考證을 試圖해 봄으로써 그 文化가 지니는 性格을 把握해 보고자 하였으나 資料의 貧困과 다시 文獻마저 全無하여 試論에 지나지 않은 感이 많으나 앞으로 資料의 追加와 隣接 地域의 間接的 周邊資料 및 史料가 相照 詳考됨에 따라 補完되어질 問題라 믿는다.

濟州道 古美術은 大陸의 北方行列과 島嶼의 南方行列 속에서 韓半島의 獨自인 感覺과 稟性으로 外來文化를 해석하고 消化하면서 韓國의 美學의 生活 터전 위에 自然主義의 樣式을 일으킨 半島의 北方與件과 島嶼의 南方文化의 外來的 要素에 싸이면서 濟州島의 固有信仰과 自然環境 속에서 生活手段에 依한 그들의 用具 製作 意圖는 하나의 特徵的 技法을 낳으면서 濟州島의 色彩를 지닌 古美術을 이룩하였다 할 것이다.

이를 立證해주는 土器에서 보면 新石器時代의 槲文土器는 바닥이 뾰족하여 半卵形을 한 形態이고 裝飾文樣도 짧은 陰刻 直線群으로 간결하면서도 整齊된 文樣 效果에 口緣部에는 點 또는 짧은 平行斜線列을 帶形으로 몇줄 돌려 視覺的 裝飾의 악센트를 주었으며 腹部의 넓은 空間에는 短斜線을 縱列 또는 橫列로 配置하여 單調에서 脫皮하려 하였고 器形과 잘 調和된 文樣은 整然에서 온 힘과 美를 잘 表出시켜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평화롭고 人間味가 있으며 가식이 없고 또 원만하고 따뜻하며 겸손하고 정직한 韓半島의 古美術과<sup>13)</sup> 類似性이 많다 하겠다.

濟州道 出土 土器의 時代的 背景은 周邊地域의 遺物 造形 技法上 年代에 聯關시켜 推定할 수 있으나 放射性 炭素 年代測定法等の 信憑度가 높은 年代測定方法을 通하여 實測年代를 밝혀 볼 問題가 남아 있다 하겠다

13) 金 元龍 「韓國美術小史」 1973.

— Summery —

## A study on unstriated crockery culture in Cheju-do

— Especially on archaic fine arts —

By

Moon Guee-seon

This thesis is meant to investigate the origin of traditional culture peculiar to Cheju-do so that we can study the formative culture on the basis of the primeval era of Cheju-do, and to attempt to make an introductory description of the main points about our traditional culture.

Such a study must be made by means of archaeological method for lack of remains of the past and bibliography concerning it. But it seems to me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describe the aspects of that kind of culture fully.

Quite recently, in many areas of Cheju-do, there are several relics and vestiges of ancient civilization—“Jisukmyo” (propping stone tombs), menhir, stone implements made by beating, stone implements made by rubbing, a fossil deer, shell-heaps, primitive men's dwelling-place and what not-were excavated, and scholars concerned have a keen interest in the discovery of the ancient fine-artistic data in the prehistoric age.

I think these archaic cultural assets have academic value and they provide us with reliable sources to study the prehistoric culture in Cheju-do, besides being the properties inherited by our ancestors. Maybe they are good proofs in pursuing the prehistoric culture in Cheju-do.

If we want to search the origin of the culture of Chejudoian ancestors in agriculture, it would be better to make allowance for the following facts.

They, our ancestors, began their living by hunting wild animals, fishing in the sea and farming in the field years later the Stone age (the Palaeolithic age and the Neolithic age) came, when our ancestors domesticated wild animals and kept them.

Anyway, I believe the form of Chejudoian ancestor's culture will be examined gradually, as the farming implements in the age of both metal goods and stonework will be excavated and as the corpse of animals and plants or their fossils will be surveyed.